

# 孝本찰에 孝교육원 선다

용주사, 「화산 효행교육원」 법인설립·6월착공  
내년 6월부터 학생·일반인 대상 합숙 교육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주지 정현스님)에 대규모 효행 교육원이 설립된다. 용주사는 (가칭)재단법인 「화산 효행교육원」을 구성, 효행교육원을 설립키로 하고 이사회구성 및 교육원 신축설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달내로 구성된 이사회는 용주사 주지를 단원직 이사장으로, 부주지를 부이사장으로 하며 효행관련 덕망있는 인사로 이사로 영입할 방침이다. 오는 6월초에 착공 내년 5월 말에 완공될 화산 효행교육원은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합숙 교육을 하는 효행교육원이다. 약 1만평의 대지에 설립될 1천 2백평 규모의 교육관과 숙소 등 2개동으로 지어질 화산 효행교육원은 4개의 강의실과 2개의 소강당 1개의 대강당 및 숙소 관

의실 등으로 구성된다. 용주사는 이미 법인정관 작성 및 이사진 구성과 밀그림과 교육원 신축관련 기본 설계 등 모든 계획이 세워진 상태이며 화성군과 경기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용주사측은 운영조직의 가장 핵심인 교육담당 교수 및 강사도 폭넓게 섭외하며 교육생들에게 충효사상을 보다 깊이있게 심어주기 위한 기본 교육프로그램도 짜여졌다고 밝힌 내년 5월 교육원 건물이 완공되는 즉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효의 본찰인 용주사에 효행교육원이 설립되는 것은 시대의 요청」이라는 주지 정현스님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효행수련을 통해 올바른 윤리의식과 국가관을 확립 건전한 사회인양을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효행교육원 설립 취지를 밝혔다.

용주사는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이 부친 사도세자의 넷을 기리기 위해 1790년에 중창한 사찰로 부모은중경탈등을 간직 효의 본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방 보훈병원에 법당 마련 간병인협 사업계획 확정 불교간병인협회(회장 석경진)는 지난 25일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95년 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유료 무료 간병봉사자 재교육을 겸한 수계식 개최(2월중) △7, 8, 9기 간병인 전문교육 실시 △보훈병원 직원·환자봉사 수계식 개최(6월) △수련회 개최(9월중) △방학을 이용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현장봉사 실시 △부산, 대구, 광주 보훈병원에 법당 마련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총회를 갖고 95년 사업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유료 무료 간병봉사자 재교육을 겸한 수계식 개최(2월중) △7, 8, 9기 간병인 전문교육 실시 △보훈병원 직원·환자봉사 수계식 개최(6월) △수련회 개최(9월중) △방학을 이용 청소년 자녀를 동반한 현장봉사 실시 △부산, 대구, 광주 보훈병원에 법당 마련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펼칠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걸린 포교원 현판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이 18년만에 독립법원으로 다시 현판을 달았다. 지난 달 20일 봉행된 포교원 개원 및 현판식에는 초대 포교원장 석주스님 2·4대 무진장스님 3대 성암도스님 등이 내한해 참석해 법원으로 승격 독립한 포교원의 장도를 축하했다.

## 종단간부 본사주지 재교육

조계종 20~22일 직지사, 지자제·통일주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이 주관하는 본사주지연수회가 오는 20~22일 직지사에서 실시된다. 올해 교육원 주요 추진사업중 하나인 승려재교육에 입각해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함을 취지로 개최되는 「본사주지연수회」는 스즈계종 연합 △한국사회속에서의 종교현황 △지도자로서의 자기변화 △불교와 환경문제 △지방자치체와 불교의 대처방안 △통일전망과 불교계의 대응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한 불교계의 대비와 활용 등의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회에는 월주 총무원장 원산 교육원장 정락 포교원장 등 3원장과 각 부장등 종단 간부진들이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신년 불교예술 대축제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 제주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단장 정우스님)은 지난달 21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95 신년불교예술 대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예술대축제에는 제주도내 각 종단스님과 신규법 도지

사를 비롯한 기관장, 신도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정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어린이를 돕기위해 예술대축제를 마련했다"며 "불교음악의 발전은 물론 도민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대축제에는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 정수라, 방실이, 이태원을 비롯 심진스님, 지범스님등이 공연을 펼쳤다.

## 선암사스님 15명 장기기증

태고종 선암사(주지 정지허)강원의 학인스님 15명은 지난 20일 총무원을 찾아 장기기증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고부부에 생명공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어 12명, 사비니 3명은 사후 안구기증, 뇌사시 장기기증, 사후 시신기증 등에 서명을 했으며, 15명의 스님외에 선암사 대중과 선원의 스님들도 장기기증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고 있다. 장기기증에 참여한 한 스님은 "처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수행자의 입장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의외로 선암사 전대중이 동참하기로 해 더욱 기쁘다"고 말하고 인간사랑운동의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관이 기자 집단폭행 불기협 진상규명 촉구

한국불교신문 신원식기자가 지난달 22일 노원구 불암파출소에 끌려가 경찰관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경치 12위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신기자에 따르면 22일 저녁 친구와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친구가 쓰러져 할과상을 입어 일으며 세우는데 이를 지켜본 중학생이 파출소에 신고해 경찰이 연행해 갔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기자에게 폭력에 대한 진술서를 강요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말을 듣지 않자더



◇지난달 25일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삼중·성보스님과 신도들이 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재일동포를 돕기위해 성금을 모금했다.

## 지진피해 동포에 성금 줄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송월주 스님은 지난달 25일 일본 대지진 참사 위로금 1천만원을 한국일보 「간사이(關西)지진피해 재일동포 이주민 돕기 운동」 창구에 문화사회부장 시현스님을 통해 전달했다. 월주총무원장은 5천여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 대지진 참사는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참사에 우리 불자들은 민족의 이해를 떠나 인류애로써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150여명에 달하는 교도들의 피해와 성보불구를 돕는데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은 앞장서 지원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에앞서 20일 월주스님은 일본대사관을 방문해 지진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 삼중스님(자비사 주지)도 지난달 25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명동 롯데백화점 본점앞에서 성금모금행사를 벌였다. 성보스님(부산 능인정사 주지)과 신도들이 「지진으로 통곡하는 재일동포를 돕읍시다」란 어깨띠를 두르고 동참한 가운데 계속된 이번 성금모금행사는 5살의 어린 아이에서부터 70세 할머니까지 많은 시민들이 모금에 동참했다. 삼중스님은 이번 모금행사에 이어 부산에서의 모금행사와 일본에서의 전담회 개최로 지진피해 재일동포들을 돕을 계획으로 있어 많은 교계단체의 동참이 있기를 전망했다.

## 통일음악제 백두산 등정추진

전북불교연맹(상임의장 지선 이하 전불련)은 지난 21일 전북불련 법당에서 제2기 4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95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실천승가회 청년연례회 대담청 등 9개단체 12명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에서는 열린조직으로 불교운동의 연대확장, 통일시대와 지역시대 준비 등을 사

## “종교교육실시 빠를수록 좋아”

불국사 연수참가 초·중·고교사 설문 결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학교내의 종교교육에 대한 시각과 신앙행태를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같은 설문조사는 지난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불국사에서 열린 「불국사 교사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각지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24명의 5개 주제, 30개 항목의 설문지 작성을 통해 이뤄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앙강령은 1~5년이 47%, 6~10년이 8%, 11~15년이 5%를 갖고 수권자본을 늘이기 위한 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수권자본 늘이기에 따른 정관수정 내용과 94년 결산 승인, 2차 불자주식청약 계획을 위한 주주총회소집 승인도 함께 할 예정이다. 95학년도 신입생 모집 법사원 불교대학 법사원 불교대학(학장 목정배)에서는 9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과와 법사원 2개과를 모집하는 법사원 불교대학의 접수는 오는 20일 까지이다. (02)266-1827

## 나와 이웃 그리고 자연은 하나

# 아직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금강경을 작품가치로만 보고 계십니까?

## 금강경(후면) 10폭 병풍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성품 살아있는 호신경전

### 秘經 천불 금강경

순금(24K) 양표면처리

·경판규격 : 505 x 255 x 8 (mm) ·재질 : 주석(99.9%) ·특별가격 ₩ 480,000  
경판테두리에 간을 쌓아 장문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쪽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받게 하였습니다.

●특징 전면 원력능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全書로 조성 하였습니다. 후면 국전작가 재가불자 화백의 연화도 진품 ●규격 ·높이 : 5자 8치 (175.8cm) ·폭 : 14자 5치 (439.5cm) ·재질 : 스키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주지 ●포교가격 ₩ 490,000

▲후면(진품연화도) ※ 침조·후면에 석가세존대기(팔상륙)를 원하시면 꾸며 드립니다.

금강석같은 금강경 병풍을 설명절 특별가격으로 한정수량을 보급합니다.

(글로벌서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글로벌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기획 제작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